

■ 법률 칼럼

### 취업이민과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단계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미연방 노동부 (U.S. Labor Department)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적정임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연방 노동부는 신청자의 직위 (job title), 학력 그리고 경력 (Job Experience) 등을 고려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직위 (Job title/position)에 적절한 적정임금을 책정합니다. 이때 결정된 적정임금은 이민 청원서 (I-140)의 승인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스폰서 회사는 적정임금을 지불할 만한 재정적인 능력 (Ability to Pay)이 노동 승인서 (L/C)가 접수되는 시점부터 영주권 심사가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I-140 청원서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회사는 영주권 신청 고용인이 영주권을 받은 시점부터 이 적정임금만큼의 급여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영주권 신청인이 취업비자 등으로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영주권 승인 전에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고용주는 적정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정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회사 세금보고서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민을 고려하고 계신 신청자들은 스폰서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이 세금보고서를 통해서 미리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취업이민 신청자 분들이 이 간단한 절차를 무시하고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검토하지 않고 이민을 진행하시다가 낭패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스폰서 회사의 세금보고서를 미리 검토해서 그 자격 여부를 미리 체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재정 능력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폰서회사의 순이익 (Net Income)이나 순자산 (Net Asset)이 책정된 적정임금보다 높으면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이민 신청자가 취업비자 등으로 이미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이미 그 적정임금 수준의 봉급을 받고 계시다면 그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고학력을 요구하는 2순위 직종의 적정임금 수준이 3순위 위보다 높습니다. 그러므로 2순위 이상의 취업 스폰서가 되는 회사는 회사 재정 능력이 상당히 높아야 합니다.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나 학사와 그 전공 분야의 5년 경력을 가지고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분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3순위의 취업이민의 경우도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기 전에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全權 律師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일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치과 칼럼

### 치과 임플란트로의 접근

▶ 1407호에서 이어집니다.

인류가 오래전부터 상실된 치아를 복원시키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시도했다는 기록들이 있지만, 현재 새로운 치과 치료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티타늄을 이용한 임플란트 치료는 40여년 전 스웨덴에서 틀니만이 유일한 대안이었던 무치악 환자들을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임플란트는 일반적인 형태의 틀니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기능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식립된 임플란트에 고정된 틀니는 탈락이 쉽고 저작하는 힘을 많이 줄 수 없던 일반 틀니에 비해 훨씬 편하고 강한 저작력을 발휘해 사람들로 부터 많은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후 치아가 부분적으로 상실된 부위에도 적용되면서 현재와 같이 다양한 방법과 디자인의 임플란트 치료법이 개발되었고 여러 시행착오와 끊임 없는 과학적 연구 끝에 최근 10년 동안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법은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초기에 기능을 우선시 하던 치료 관점에서 이제는 자연치아와 같이 심미적인 만족과 기능적인 만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치료법이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자연치아의 기능과 모양을 재현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실시된 임상연구에 의하면 임플란트는 30년 동안 8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치과 치료법 중 가장 높은 성공률입니다. 그만큼 임플란트는 미래를 약속하는 치료법이고 이를 이용한 치료 요구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많은 치과에서 일반 기본 치료법 중 하나로 선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임플란트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자연치아의 심미와 기능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임플란트 식립 전에 우선 임플란트가 심길 부위 조직을 자연치아가 있던 상태와 비슷하게 재건해야만 가능합니다. 심한 충치나 치주염으로 인해 치아가 발거되면 치아 주변 골조직과 연조직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조직들은 치아를

지지하기 위해 존재하던 조직들이어서 치아가 발거되면 그 기능을 잃고 존재의 이유를 갖지 못해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혹은 전부 상실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조직에 임플란트를 심어 자연치아 상태의 결과를 기대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고려할 때 제일 먼저 눈여겨 보는 것이 뼈의 양과 밀도입니다. 일단 임플란트가 심겨질 수 있고 또 튼튼하게 버틸 수 있을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치아 발거 후 남은 뼈의 양이 필요한 크기의 임플란트를 위해 충분한지 알아야 합니다. 뼈의 양이 부족하면 골이식술이 필요합니다. 골이식술은 임플란트 치료의 적응증을 확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왔지만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재생시킬 수 있는 뼈의 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 치아의 재건이 끝나고 나서도 임플란트 주변 조직은 시간에 따라 변화합니다. 불행히도 이 변화의 흐름은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주로 없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 집니다.

한번 심겨진 임플란트는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좋은 치료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어떻게 치료 계획을 세우고 시술 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좋지 않은 결과로 인해 한번 뼈에 밀착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식립할 수 있는 상태로 조직을 재건해야 하는 시술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첫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불행한 결과를 방지하고 좋은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현실적인 결과 예측을 고려한 치료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임플란트 치료를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자신의 상태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 상태를 토대로 임플란트 치료 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시술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인 치료 결과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YON DENTAL GROUP  
 Gene H. Park DDS, MS  
 한인 치주 임플란트 수술 전문의  
 Fullerton Office: (714) 519-3932



#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 (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PWC 근무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